진도 관매도, 27일 전국의 시청자들 찾아간다

배우 김상호, 윤계상, 박지환, 차우민… TV조선 신규 예능 프로그램(90분) 6부작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가 배우 김상호 씨가 출연하는 티브이조선(TV조선) '제철남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소개된다.

관매도는 섬 전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조도군도(群島) 중에서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호 명품마을'이자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또한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다도해 걷기 여행길'과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는 등 정부가 공인한 '섬 중의 섬'이다.

'제철남자'는 티브이조선(TV조선)이 야심 차게 처음 선보이는 중년 현장 체험형 예능(로드 버라이어티)으로, 김상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예능 프로그램이다.

32년 차 배우이자 13년 차 농부인 김상호가 자신의 아지트를 텃밭에서 바다로 옮겨, 섬과 바다에서 배우 친구들과 제철 음식을 나누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즐길 예정이다.

고정 출연자로 엠지(MZ)세대 대세 배우 차우민이 함께 하며, 첫 초대 손님으로 배우 윤계상, 박지환이 출격한다.

특히 관매 8경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해 관매도의 자랑인 톳과 쑥을 출연자들이 직접 채취하며,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바다 식재료로 푸짐한 바다 한 상을 차려내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할 예정이다.

관매도 주민들은 김상호 등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음식을 나눴고, 네 남자는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맛에 감동하며 폭풍 먹방을 선보였다.

주민들과 식사하며 낭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출연자들, 여기에 '행복에도 제철이 있다면 지금'이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출연진의 진심이 담긴 웃음소리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제철남자'가 선사할 따뜻하고 유쾌한 치유(힐링) 이야기에 전국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홍보팀 관계자는 "시기·주제·분야별로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먹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볼거리 등을 신문·방송·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군, 정부 민생경제 회복 기조 선도한다

월출페이 이벤트 연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비 준비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

지역소비 촉진, 영암군민 생활 안정 등을 증폭하기 위한 영암군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그 한 축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현재 시행 중인 '월출페이 15% 캐시백 이벤트'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종이상품권은 10% 선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나아가 7/1일부터 월출페이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종이상품권 포함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단, 종이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최대 2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사용처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둘째, 영암군은 정부가 7~8월 지급 검토 중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 판매 대행기관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쿠폰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암군민에게 월출페이 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

쿠폰 발행 전에 농·축·신협, 새마을금고 등 판매 대행기관 31개소에 방문해 월출페이 카드를 발급하고, 여기로 쿠폰을 지급받아 쓰면 지역경제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고 넓게 지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은 쿠폰과 월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 미가맹 사업장의 가맹점 가입도 홍보하고 나섰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월출페이 QR코드로 결제한 매출금을 다른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결제 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10% 돌려주는 방식이다.

나아가 QR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모두 영암군이 부담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로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장성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심사 및 등급 선정,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 정비목록 보고를 진행했다. 군은 앞선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기획실 사전검토,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육묘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학교밖청소년 포함 2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위임사무 4건과 민생규제 고유사무 7건, 그림자규제 5건을 합쳐 총 16건의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그림자규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다.

장성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육묘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학교밖청소년 포함'은 군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나주소방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관내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침수우려 도로, 둔치 주차장, 야영장,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사전 확인 ▲ 산사태, 붕괴 위험 등 자연재해 요소 점검 ▲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각종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나주소방서는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소방력 전진배치 방안도 함께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공조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시, '6월 감동데이'… 시민 고충 듣고 해법 모색

정인화 시장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해결책 찾을 것"

광양시는 지난 6월 25일 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6월 광양 감동데이'에서 정인화 시장이 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동데이에는 2개 팀, 9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논의된 건의 사항은 ▲봉강면 상봉마을 농로 확·포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역 수의계약 요청 ▲특수임무유공자 수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총 3건이다.

먼저 봉강면 상봉마을 주민은 "농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로 확·포장을 요청했다. 이에 정 시장은 "불편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양시지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이에 정 시장은 "단체에서 요청한 특정 분야의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수혜 확대를 위해, 관내 시설 운영 관련 조례의 감면 대상 조항에 단체 법령을 별도로 명시해 달라는 조례 개정 건의가 논의됐다.

정 시장은 "관내 시설 운영 관련 조례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단체별로 열거할 실효성이 낮다"며 "다만 보훈단체별로 열거돼 있고, 그중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외됐다면 동일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훈명예수당, 의료수당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보훈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보훈 복지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갱신 순회 교육'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23일 레저문화센터에서 2025년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운전면허 갱신 순회 교육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은 찾아가는 공단 교육장을 운영하며,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면허 민원 해소와 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면허 갱신 서류 접수를 당일 현장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또한 제공했다.

이 교육은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 고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곡성군과 곡성군노인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하여 추진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및 신체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안전운전 교육을 받고, 교육 종료와 동시에 법정 이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곡성군청 김왕현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단순한 이수 절차를 넘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